

3인3색... 광주시장 후보 선거캠프 구성은

윤-시민통합형, 강-원로·전문가, 이-시민선대위

윤장현-조영택 선대본부장 ... 사회단체 인사 총망라

강운태-선대본부장엔 이정희 ... 다양한 직업군 포진

이용섭-소상공인 위주 ... 경제·법조·교육계 인사 포함

6·4 지방선거 후보가 등록이 시작된 15일 광주시장 후보들이 선대추진위원회(본부)를 꾸리고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돌입했다. 윤장현 후보는 시민통합형 선거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운태 후보는 원로·전문가, 이영섭 후보는 소상공인 위주 등 각 후보 캠프에 참여할 인사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략공천한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에 맞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운태·이용섭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이번 광주시장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세 확장이 급한 각 후보들의 선거캠프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윤장현 후보는 시민사회 인사들을 총망라한 시민통합형 선거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선거추진본부장은 조영택 전 국회의원이 맡아 캠프 실무를 총괄한다.

조 전 의원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한 경험이 있다는 점 때문에 주변인들의 많은 권

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의원은 특히 당시 윤 후보처럼 전략공천으로 시장후보가 됐다 점에서 '닭은 꼬리'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조 전 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박광대 후보에게 석패했다.

또한 광주 행정부시장을 지낸 송재구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과 오세철 전 금호타이어 사장, 정찬용 서남해안포럼 상임대표, 이강 전 들불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수무를 유니버설 문화원장 등 평소 윤 후보와 가까웠던 지역사회 행정관료·경제인·시민단체·외국인 등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했다. 이외에도 윤 후보가 평소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했던 만큼 많은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캠프 안팎에서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운태 후보의 선대본부에는 광주

지역 원로와 전문가 등 각계 각층 40명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참여했다. 강 후보 측은 15일 선거 캠프를 3실·13본부, 22개 위원회로 탄탄한 시민통합형 진영으로 꾸렸다고 밝혔다. 공동선대위원장은 박선홍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장과 문병란 시민 등 모두 4명의 지역 원로를 포함해 정계와 언론계, 여성계, 학계, 체육계, 노동계, 문화계 등 각 분야별 인사들이 고루 포함됐다.

총괄선거추진본부장은 강 후보와 정치적 동지이자 친분이 두터운 이정희 변호사가 맡았다.

정치권에서는 김재준 전 국회의원과 강 박원·반명환 전 광주시의회 의장이 참여했고, 노동계에서는 정수민 전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이 공동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여성계에선 안성례 인권도시관장과 박영희 광주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이, 문화계에서는 최규철 광주에총 회장 등이 참여했다.

강 후보 측은 선대본부에 가능하면 다양한 계층과 직업군이 고루 포함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섭 후보는 지난 12일 선

대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선대위에는 경제와 경제계·언론계·법조계 인사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

선대위에는 조재태 전 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 이흥길 전 5·18 기념재단 이사장 등 13명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또 총괄추진본부장에는 교육계와 정계·경제계 인사가 맡았다. 1980년 5·18 당시 시민·학생 투쟁위원회 총위원장을 맡아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종배 전 국회의원(15대)과 교육계 인사인 박인화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경제인 장기원 씨 등 3명이 포진했다. 이 예비후보 측은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선대위로 확대 구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엄종대 전 광주은행장 ▲도제길상사 주지스님 ▲김경천 전 국회의원 ▲이동훈 학정서예연구원장 ▲이정일 전 광주 서구청장 ▲허정 전남대 총동맹회장 ▲홍광표 전 아시아자동차노조위원장 ▲김준철 (주)달밭 대표이사 ▲이성숙 변호사 ▲박현용 대학원생 등이 공동 선대위원장에 포함됐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권노갑, 광주서 윤장현 '버스 지원 유세'

새정치민주연합 권노갑 상임고문이 전략공천된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와 이번 주말부터 광주에서 '버스 유세'에 나선다.

당 관계자는 15일 "권 고문이 지난 14일 김한길 공동대표와 만나 '전략공천 절차, 발표 시기 등 과정은 잘못됐지만 당의 후보가 성공해야 당이 선다'며 '윤 후보 지원 유세'를 하기로 한 것은 2012년 대선 때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지원 유세를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권 고문의 측근도 "권 고문이 오랫동안 경선을 준비해온 강운태 현 광주시장, 이용섭 의원에겐 미안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당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12일 서울 시내에서 권 고문과 오찬 회담을 갖고 지원을 요청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윤장현 "5·18 당시 부상자 치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는 5·18 구속부상자회가 1980년 5·18 당시 행적을 밝히라고 한 공개 질의에 대해 15일 "조선대 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다친 시민 부상자들을 치료했다"고 밝혔다.

안과 의사인 윤 후보는 "80년 당시 안과 레지던트 1년차로 일주일에 1번 정도 집에 들어가는 생활을 했다"며 "계엄군 장교도 1명 치료했는데, 약간 술 냄새가 났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훗날 병원 기록이 중요할 것 같아 기록병원 의사 전홍준씨와 함께

전남대 병원, 기록병원에서 치료받았던 환자 기록을 확보하려고 돌아다녔으며, 선교사를 통해 (5·18 진상)외부에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 측은 "강운태 후보는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광주에 특파돼 무소속 명령을 받고 무엇을 조사했는지, 이용섭 후보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당시 청와대에 복무하면서 무소 명령을 받고 어떤 일을 했는지 밝혀달라"고 5·18 구속부상자회에 요청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교동-상도동계 한자리에 1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민주화추진협의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심포지엄에서 상도동계·동교동계 인사들이 함께 앉아 토론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장애인후보 확대"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장애인 후보를 '확대'해 장애인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지역 장애인 유권자연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한 서미정(여성) 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 회장이 광주시당

에서 1위로 통과했으나 안철수 대표가 윤장현 후보의 의중을 묻고 서미정 후보를 3위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유권자 연대는 "더구나 비례대표 순위 결정과정에서 윤 후보를 지지하면 2위로 해줄 것이라며 회유한 것이 우리를 더욱 경악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자기사람 심기와 표 장사는 새정치가 아니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없고 정당한 심사에 의한 순위마저 자기사람으로 교체하는 윤장현 후보 또한 새정치에 어울릴만한 후보가 아니다"며 윤 후보 낙선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고위원회를 열어 윤장현 후보와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박미경(여성)씨를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1위로, 김용집(남성)씨를 2위로, 서미

정씨를 3위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관계자는 "박미경씨가 비례대표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혀왔다"며 "서미정씨가 비례대표 1번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2번까지 당선 안권으로 보고 있다.

박미경씨의 사퇴 소식이 알려지자 유권자연대는 앞선 보도자료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정재(사진 왼쪽) 새누리당 광주시장 후보는 15일 새누리당 광주시당 1층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날 공동선대위원장인 서청원 전 대표가 참석해 격려했다. (새누리당 제공)

새누리 서청원 선대위원장, 이정재 후보 개소식 참석

새누리당 서청원 공동선대위원장이 15일 당 소속 이정재 광주시장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에 왔다.

서 위원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세월호 참사로 국가 기강이 무너져서 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야 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통한 사후 수습도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직한 사람에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를 많이 받아서 그런 일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 지원,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 참회 특별법'(세월호 4·16 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에서는 이정재 후보와 이종호 전남지사 후보, 지방의원 후보 등이 와서 서로를 격려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전 → 시공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381-0061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

Eco Dome House
에코돔하우스

웰빙시대와 친환경 건축자재의 선택!

에코돔하우스는 세계 유일의 레고 조립형(특히) 초경량 단열보드를 이용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시공 가능하며 당사에서 생산하는 특허제품 이지골드코트의
성능을 고스란히 돌며 집속시킨 기능성 친환경 돔하우스입니다.

에코돔하우스 기능성
불연/결로방지/원적외선 방출/음이온 발생/탈취 기능/항곰팡이 기능/항균 기능/복사열 방지/친환경 건축자재

대리점문의 본사 :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41-634-9909 / T. 010-7514-3266

(주)홍성이엔지
www.hsegreen.com

호남영업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62-513-1400 / F. 062-513-1404
대리점 : 광주광역시 T. 010-5679-8100 / 광주광역시 T. 010-5609-3500 / 광주광역시 T. 010-3641-9680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 /